

## 제5회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공모 당선 작품소개

이 글은 당협회가 '89년도 우유 공동홍보의 일환으로 제5회 전국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작품을 공모한 결과 총 응모자 7,712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새싹회 아동문학가 윤석중씨를 통해 엄격한 심사결과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佳作 5편, 입선작 10편, 장려상 30편 등 총 48편이 당선되어 지난 호에는佳作1편, 입선작4편을 소개하였고 이번호에는 입선2편, 장려상1편을 소개하며 잔여 입선작, 장려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본지에 소개 하고자 한다. (편집자 註)



입선

## 우리집은 우유가족

인천 석정국민학교  
1의6최 초 롱

딩동 덩동! 나는 날마다 이소리를 듣고 일 어납니다. 누구세요? 우유입니다. 제일먼저 물을 열고 나가는 사람은 우리집에선 내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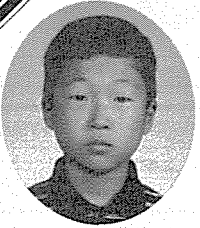
인혁이입니다. 그런데 인혁이는 우유를 한방 울도 안먹습니다. 어느날 이었습니다. 내가 깜박잊고 우유를 안먹고 학교를 다녀왔는데

냉장고안에 있어야 할 우유가 오늘은 이상하게 보이질 않았습니니다.

나는 어머니께 여쭙어 보았습니니다. 엄마 우유주세요? 엄마는 대답은 안하시고 웃고만 계셨습니니다. 엄마는 대답하시기를 인혁이한테 물어 보렘? 하셨습니다. 인혁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말했습니니다. 누나 미안해 오늘 우유는 내가 먹었어. 우유를 먹으면 소처럼 힘이 세어진다고해서 나도 우유를 먹고 힘이 세어지고 싶어서 누나가 먹을 우유를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의심이 생겼습니니다. 인혁이는 우유를 한방울도 안먹는데 어쩐일로 내우유 한통을 다먹었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몹시 궁금해서 아빠께 여쭙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아빠는 우리에게 줄 감을 10개나 사오셨습니다. 아빠

인혁이가 내우유를 다먹었대요. 아빠도 알고 계셔요? 아빠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인혁이가 오늘 아침에 우유1통을 먹어서 아빠가 연시를 사온거란다. 나는 이해가 가질 않았따. 인혁이가 먹지않던 우유를 먹었는데 아빠가 감을 사오셨다니 왜 그랬을까요? 인혁이는 우유를 급히 먹어서 배가 아파서 아빠께서 연시를 주셨습니다. 우유를 먹고 배가 아프면 연시를 먹어야 한다고 아빠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떠한 음식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우유를 먹을때는 급히 먹지말고 꼭꼭씹어서 천천히 먹어야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식구 모두는 우유를 먹는 가족이 되었고 우유를 먹을때에는 천천히 씹어서 먹는것은 우리집의 비밀이랍니다.

선전

## 고마운 우유

대구 동덕국민학교  
1의4 김 승 현

아버지께서는 우유 대리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우리집을 우유집이라 부릅니다.

매일 새벽 일찍 아버지는 대리점으로 가서 공장에서 싣고 오는 여러가지 우유를 판매원 아주머니 아저씨들께 골고루 나누어 주시며 바쁘게 하루 일을 시작하십니다.

나는 우유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좋은 영양식품이라는 것을 알고난 뒤 아버지가 하시는 우유 대리점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니다.

텔레비전에서 우리집 우유 선전을 하면 나도 모르게 신이 났으며, 우유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유가 먹고 싶은 우리집 이웃 사람들은 우

유 주문을 많이 하기때문에 우리집 아침은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나는 형과 함께 일찍 일어나 비닐 주머니에 우유를 담아 이웃에 배달을 해놓고 학교에 갑니다.

내가 제일 먼저 우유를 가져 가는 곳은 여관집 할머니께 드릴 우유입니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셔서 우유를 하루에 몇 개 씩이나 잠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는 밥보다도 우유를 더 많이 드시나 봅니다.

날이 밝아지면 늘 대문을 반 쯤 열어 두신 뒤 내가 우유 가져 오기를 기다리며 앉아 계시는 그 할머니의 건강을 우유로 지켜드릴 수 있어서 나는 우유가 참 고마웠습니니다.

햇볕이 따스한 3월 어느날, 여관 할머니께

서는 예쁜 분홍색 도시락 한 개를 들고 우리집에 오시더니

“승현아, 내가 매일 나한테 우유를 잘 갖다 주어서 정말 고맙다. 내가 학교에 입학했는데 무얼 선물해 줄까 싶었는데 잘 됐구나. 이 도시락 네가 가져라.”고 하시며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기뻐서

“할머니, 고맙습니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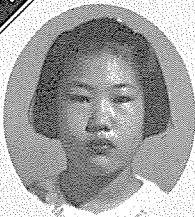
알고보니 그 도시락은 할머니의 막내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뒤 취직이 되어서 회사에서 받은 첫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바이얼린을 하는 날은 그 예쁜 분홍색 도시락에 점심을 싸가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내가 돌린 우유가 할머니께 매우 고마웠듯이, 나도 할머니께서 주신 도시락의 밥을 먹으며 할머니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할머니의 건강을 빌어 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우유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장려



## 고마운 우유

대구 대성국민학교  
5의 4 손 미 정

“한국 이겨라! 한국 이겨라!”

우리집 식구들은 한국과 미국과의 농구 경기를 보며 한국을 열심히 응원하였다.

전반전에는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놓였다.

지금처럼 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미국에게 이길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버지, 우리 한국 선수들이 생각보다는 잘 하는데요?”

하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음, 우리가 6.25 이후, 급속히 발전하여 스포츠 강국이 되고 보니, 이 아버지도 대단히 기쁘구나.” 하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우리 식구들은 새콤한 사과를 먹으며 계속 후반 경기를 지켜 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뜻밖의 일이 생겼다. 후반전에 들어 갑자기 미국 선수

들이 앞서가기 시작하였다.

나뿐이 아닌 우리 식구들은 가슴 조마조마한 눈으로 텔레비전에 모두 눈길을 쏟았다.

드디어 경기가 다 끝났다. 그러나, 우리 식구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우리 식구만이 아니고, 이 농구경기를 지켜 보았던 모든 국민들도 실망이 컸을 것이다.

미국 선수들이 14점 이라는 큰 점수차이로 보란듯이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 곧 알게 되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 이 농구 경기에서 저버린 것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키 때문이다. 그놈의 키가 작아서 한국 선수들이 졌다.

나는 한국 사람들이 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키가 작은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 한국 사람들은 왜 키가 작아요? 그놈의 키만 컸더라면 오늘 농구 경기에서 이

겼을 텐데…….”

하고, 말끝을 매듭 짓지 못했다.

아버지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키가 크고 작은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란다. 어려서 부터 음식을 골고루 먹기만 하면, 키가 클 수 있단다. 특히 우유는 우리가 자라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이야. 우유를 많이 먹으면, 키가 많이 클 수 있고 몸도 건강해 진단다. 서양 사람들을 보라. 어려서 부터 우유를 많이 먹으니깐. 그렇게 키가 크지 않겠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유를 많이 먹어야 한단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키가 작은 이유를 알게 되었다.

우유가 그렇게 좋은 구실을 한다니, 참 고맙다.

단지, 우리 국민들이 우유를 많이 먹어서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말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시계를 보니 8시

였다.

그런데, 동생이 갑자기,

“엄마, 우유줘.”

라고, 평소때 하지도 않았던 말을 꺼내는 것이다.

나는 너무 궁금해서,

“미숙아, 갑자기 우유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어이 없는 표정으로 물어 보았다. 그러자 동생이,

“언니, 낮에 농구 경기 다보고, 아빠께서 하신 이야기를 못 들었어? 한국 사람들도 우유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식구도 우유를 먹어야지.”

하고 어른스럽게 말했다. 나는 동생이 참 좋은 말을 했다고 생각되었다.

어머니께서 우유를 사가지고 오셨다. 우리 식구들은 우유를 마셨다. 우유가 고맙게 느껴진 나는,

‘우유야! 고마워.’

하고 속으로 인사말을 했다. 나는 내일 우유 먹을 시간을 기다리며 꿈나라로 눈을 돌렸다.

